

# 바다제비 최대 번식지 신안 칠발도 고유 생태환경 되살린다



칠발도에 폭넓게 분포하는 바다제비 등 바다새 번식지는 지난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바다제비 한 마리가 외래종인 쇠무릎에 걸려 움푹달락 못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가 바다새 서식지 복원을 위해 쇠무릎을 뽑아낸 뒤 물에서 가져온 밀사초를 심고 있다. 폐사한 바다새들의 개체수를 일일이 집계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의 모습과 칠발도 전경 사진. <환경부 제공>

## 외래식물 ‘쇠무릎’ 번식 바다새 매년 400여마리 죽어 환경부·신안군 자생식물 밀사초 이식 서식환경 복원

바다제비와 바다쇠오리 등 바다새의 최대 번식지로 잘 알려진 신안군 칠발도의 식생이 복원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칠발도의 외래 식물을 없애고 자생식물을 옮겨심어 바다새 번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발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무인도로 섬 일원에 분포하는 바다새 번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과거에는 유인 등대가 있어 사람들이 오갔지만 등대가 무인 시스템으로 바뀐 뒤 바다새들만 찾는 섬이 됐다. 이곳에는 바다제비 1만여 쌍, 바다쇠오리 3천여 쌍 등이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매·갈새 등 희귀한 새들도 이곳에서 번식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칠발도는 쇠무릎 같은 외래 식물의 개체수가 늘어나 바다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곳 등대가 무인 등대로 변하기 전 사람을 따라 함께 들어오게 된 쇠무릎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쇠무릎은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 마디가 소의 무릎 뼈 같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쇠무릎’이란 이름이 붙었다. 9~10월께 열매가 익는데 모양이 갈고리 형태라 바다새들의 날개에 잘 엉겨 붙는다.

쇠무릎 근처에 동지를 틀고 들고나는 바다제비는 날개에 종자가 달라붙으면 이를 털어내려 날갯짓을 계속 하다 탈진해 죽는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쇠무릎에 엉겨 붙어 죽는 바다새들의 해마다 4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새들의 번식을 위해 쇠무릎 등 외래 식물의 개체수를 줄이려는 식생 복원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신안군 등과 함께 쇠무릎을 없애는 칠발도 복원사업을 해왔지만 섬 대부분의 지역이 급경사 내지는 절벽 형태라서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6월부터는 방법을 바꿔 칠발도 자생 식물인 밀사초를 육지에서 키워 옮겨 심기 시작했다. 쇠무릎과 서식지 경쟁을 시켜 자연적으로 칠발도 고유 식생이 복원되도록 한다.

밀사초는 바닷가 모래 위나 절벽, 바위 틈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현재까지 육지에서 옮겨 심은 개체수는 1만6000여 개에 달한다. 공단은 이 풀이 칠발도의 토양양분을 막아주고 바다새들의 둥지 입구를 가려주면서 번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칠발도 고유종인 밀사초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쇠무릎이 줄게 돼 바다새들 서식 환경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부사소 소장은 “여름 철새인 바다제비 개체군의 80% 이상이 칠발도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만큼 밀사초 군락지를 조성하고 식생을 복원해 바다새들의 안정적인 번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독버섯 80여종 ‘한 눈에’

국립수목원 스마트폰용 앱 출시  
특징·사진 담겨 식용버섯과 구별

국립수목원은 최근 스마트폰용 무료 앱 ‘독버섯 바로알기’를 출시했다.

앱에는 독버섯 80종의 특징과 사진 등이 담겨 있어 모양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식용버섯과의 차이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다. 증상에 따른 독버섯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독버섯 중독 사고는 주로 늦여름과 초가을에 발생한다. 이 시기에 개암, 꾀꼬리, 노루궁뎅이, 너타리, 능이 등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이 많이 자라 주의보가 발령된다.

야생 버섯을 먹고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모두 토해내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먹다 남은 버섯을 갖고 가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독버섯마다 독소가 달라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이다.

‘독버섯 바로알기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용만 출시됐고, 아이폰용은 개발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4명이 독버섯을 먹고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버섯 형태로 찾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내달 1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경부 4월 11일부터 92명 접수  
질병관리본부 피해여부 조사 판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이다. 성인은 52명, 소아는 40명이다.

‘가습기군체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인 4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 위원회에서 피해여부를 조사해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 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9월부터 우선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 영산강환경청·지자체 합동점검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2일까지 환경오염 우려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시·도(시·군·구) 환경오염 단속 담당공무원 350개팀 720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별감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휴 전, 추석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선 연휴 전에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는 공단지역과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이후 추석 연휴가 끝난 12일까지 연휴기간 증가 동종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가 없는 추석 연휴를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환경오염신고 창구(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지역번호+128)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